

대전엑스포 한빛탑

한화그룹에서 세워 宗門의 자랑



대전엑스포 박람회장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빛탑!

엑스포의 상징답게 전시의 주제는 '도약의 빛'으로 잡았다.
 높이가 93년을 상징하여 93m.
 총공사비 1백 20억원.
 금부洲 本會顧問이 이끄는 한화그룹에서 세운 이 한빛탑은 다른 전시관
 과 달리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대전엑스포 개척기념탑으로 영원히 남게
 되니 한화그룹의 榮光이요, 우리 順天宗門의 자랑이다.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第四期 決算報告書 (1992년4월1일~1993년3월31일)

第五期 歲入·歲出豫算書 (1993년4월1일~1994년3월31일)

收入部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科 目	金 額	構 要	
名譽會長年會費	200,000	1名分	
副會長年會費	2,400,000	8名分	
監事年會費	60,000	2名分	
顧問年會費	340,000	10名分	
幹事年會費	210,000	6名分	
理事年會費	3,280,000	金龜淵理事外 90名分	
代議員年會費	990,000	金完善代議員外 43名分	
世代當年會費	48,000	金近淵氏外 3名	
收入利子	1,711,771	農協 14,008 한일은행 1,697,763(別添明細書)	
贊助金	6,170,000	金昇淵顧問外 70名分(別添明細書)	
宗報發刊協贊金	1,890,000	金相容理事外 14名分(別添明細書)	
世積配當金	20,000		
小計	17,319,771		
前期에서移越金(現金)	520,300		
한 일 은 행	19,550,260		
농 협	1,066,589		
小計	21,137,149		
合計	38,456,920		

歲入部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科 目	金 額	構 要	
會長年會費	1,000,000	1名(1,000,000원)	
副會長年會費	2,700,000	9名(300,000원)	
監事年會費	90,000	3名(30,000원)	
名譽會長年會費	30,000	1名(30,000원)	
顧問年會費	390,000	13名(30,000원)	
幹事年會費	210,000	7名(30,000원)	
理事年會費	4,770,000	159名(30,000원)	
代議員年會費	3,080,000	154名(20,000원)	
世帶當年會費	2,500,000	500戶(10,000×50/100=5,000원)	
贊助金	8,000,000	宗報發刊協贊金包含	
世積配當金	500,000	世積 50卷 代金	
收入利子	1,600,000	預金 20,000,000원에 對한 年8%	
小計	24,870,000		
前期에서移越金	18,649,510		
合計	43,519,510		

支出部			
科 目	金 額	構 要	
給手當料	3,750,000	女職員 1人 給料	
當料	1,440,000	女職員 1人 手當金	
交通費	4,545,200	常勤幹事交通費 및 食代	
會議費	3,002,070	會長會議費114,210 理事會議費994,720 幹事會議費195,140 總會費2,098,310	
備品費	33,000		
圖書費	63,000	新聞一部購讀料	
事務用品費	139,650		
信待費	250,290		
印刷費	468,300		
香宗務料	1,010,730	任員委屬狀 및 케이스 製作料 758,000원 包含	
費	400,000	始祖墓祀 위시한 5件	
宗報發刊費	265,000		
教養講座費	3,115,740	宗報第五,六號發刊費	
施賞費	470,020	第七期分一部包含	
始祖墓域淨化事業支援費	231,000	金龜淵前任善事長, 孝子金石鑄, 金采用名譽會長施賞	
任員手帖制作費	138,300	資料蒐集, 寫真攝影, 現場踏查費用等	
消耗品費	27,480		
雜費	56,950		
小計	400,680		
現預金	19,807,410		
小計	82,912		
合計	18,566,598	한일은행 18,565,881 農協 717	
合計	18,649,510	當期剩餘金(次期에 移越金)	
合計	38,456,920		

歲出部			
科 目	金 額	構 要	
給手當料	4,800,000	女職員1名 月 400,000원	
交通費	2,200,000	女職員1名 月 50,000원 其他 400,000원	
會議費	5,760,000	財務幹事1名 出納手當 月 100,000원	
宗報發刊費	2,980,000	常勤幹事3名 6,000×3×20×12=4,320,000원	
教養講座費	5,000,000	其他2名 6,000×2×10×12=1,440,000원	
施賞費	1,000,000	會長會議費 年2回 100,000원×2=200,000원	
顯祖祭享香料	300,000	理事會議費 年2回 3,000원×90×2=540,000원	
備品費	500,000	幹事會議費 年6回 4,000원×10×6=240,000원	
圖書費	200,000	總會費 年1回 200×10,000=2,000,000원	
事務用品費	200,000	總2回 發刊費(發送費包含)	
通接印宗組青婦消雜	240,000	年1回(제 8回 實施費用)	
信待費	240,000	善行者 및 功勞者 年2名(副賞品代包含)	
印刷費	480,000	始祖祭享香料 春秋 各 100,000원式	
圖書費	240,000	典書公 襄慶公秋享時 各 50,000원式	
信待費	240,000	其他 200,000원	
印刷費	200,000	新聞1部購讀料 其他圖書購入費	
圖書費	200,000	月 20,000원	
信待費	200,000	月 20,000원(宗報發送費除外)	
印刷費	200,000	月 40,000원	
圖書費	200,000	月 20,000원	
信待費	200,000	存 置 科 目	
印刷費	200,000	存 置 科 目	
圖書費	200,000	存 置 科 目	
信待費	200,000	存 置 科 目	
印刷費	240,000	月 20,000원	
圖書費	240,000	月 20,000원	
合計	25,420,000		
次期移越金	18,099,510	(剩餘金)	
合計	43,519,510		



C's GROUP

池袋交通株式會社

代表取締役

金 仁 培



〒 173 東京都 板橋區 幸町 48番地

TEL : 03(3955)613(代)

FAX : 03(3530)3888

三慶交通株式會社 橫濱市神奈川區羽澤町 55

- 襄景公派 判事公 17代孫
- 中央宗親會顧問
- 大統領冬柏章 敘勳

任員 年會費 納付現況表

(1993년 4월 1일 ~ 1993년 9월 20일)

副會長年會費

金 喆 熙	5次	300,000
金 科 元	5次	300,000
金 載 俊	5次	300,000
計		900,000

監事年會費

金 贊 洙	4次	30,000
金 圭 南	5次	30,000
金 佑 永	4次	30,000
計		90,000

顧問年會費

金 相 舜	5次	30,000
金 仁 培	5次	30,000
金 喆 熙	5次	30,000
計		90,000

幹事年會費

金 炳 鎰	5次	30,000
金 五 淵	5次	30,000
金 仁 熙	5次	30,000
計		90,000

理事年會費

金 大 永	4次	30,000
金 基 淵	5次	30,000
金 秉 熙	5次	30,000
金 在 燮	5次	30,000
金 奉 斌	4次	30,000
金 孝 南	5次	30,000
金 好 載	4次	30,000
金 景 南	5次	30,000
金 允 喜	5次	30,000
金 俊 一	5次	30,000
金 龍 洙	4次	30,000
金 永 昌	5次	30,000
金 湜 淵	5次	30,000
金 大 淵	4次	30,000
金 炳 和	4次	30,000

金 錫 均	4次	30,000
金 槿 熙	5次	30,000
金 政 壹	5次	30,000
金 炳 龍	5次	30,000
金 仁 善	4次	30,000
金 炳 學	5次	30,000
金 斗 燮	5次	30,000
金 仁 載	5次	30,000
金 嘉 淵	4次	30,000
金 達 賢	5次	50,000
金 東 活	5次	30,000
金 東 洙	5次	30,000
金 東 百	5次	30,000
計		800,000

金 商 佑	4次	20,000
金 珍 浹	4次	20,000
金 東 俊	5次	20,000
金 永 洙	4次	20,000
金 商 瞻	4次	30,000
金 東 春	4次	20,000
金 元 熙	5次	20,000
金 龍 載	5次	20,000
金 炳 國	4次	20,000
金 榮 淵	4次	30,000
金 世 淵	4次	20,000
金 東 哲	5次	20,000
金 圭 錫	5次	20,000
金 仁 國	4次	30,000
金 完 善	5次	20,000
김 봉 희	5.3次	40,000
김 병 우	4次	20,000
김 한 연	5次	20,000
김 등 환	4.5次	40,000
金 明 載	4次	20,000
金 東 春	3.5次	40,000
金 秉 德	4次	20,000
金 錫 胤	5次	20,000

代議員年會費

金 秀 百	4次	20,000
金 魯 淵	4次	20,000
金 光 永	5次	20,000
計		610,000

김 두 연		5,000
金 顯 南	경북 영주시	10,000
金 壽 煥	고양시내유동	20,000
金 仁 燮		20,000
金 東 耆		10,000
김 우 진		5,000
김 흥 진		5,000
김 세 진		5,000
金 再 淵	安東郡 녹천면	10,000
金 錫 瑒		10,000
金 釘 祿		20,000
計		120,000

年會費 納付 現況

中央宗親會는 宗親 여러분이 納付하시는 會費와 贊助金으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前項과 같이 宗親 여러분의 성어린 會費納付와 특지가의 贊助金에 對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年會費 納付額은 本會 第四次 定期總會에서 今年度(1993. 3. 4. 1 / 1994. 3. 31) 納付額을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습니다.

會費 納付 額

會長 白만원이상
副會長 삼만원
顧問 및 名譽會長 삼만원이상
監事 삼만원
幹事 삼만원
理事 삼만원
代議員 이만원
世帶當年會費 오천원이상

宗親인구와 宗親 會費 納付 現況

宗親 會費 納付 現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宗親 여러분께 傳達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



金 榮 培 稅 務 會 計 事 務 所

稅 務 士 金 榮 培



• 襄景公派 御史公 20代孫
• 中央宗親會 理事

事務所 : 서울 麻浦區 新水洞 46~12 (麻浦稅務署正門 옆)

電話 : 717~2668-9 FAX : 718~2600

自 宅 : 서울 麻浦區 西橋洞 475~9 電話 : 332~0020

石泉 商俊族叔을

追慕하면서

中央宗親會 名譽會長

南汀 金 采 庸

石泉族叔께서는 1993년 3월 27日 安養 自宅에서 持病으로 別世하시고 3月29日 天安市 清堂洞 先塋下에 安葬하셨습니다.

石泉族叔은 正義感이 강하시어



不義를 볼때에는 秋霜같은 강인한 一面이 있는가 하면 親舊들과 同族간에는 仁慈나 博愛 같은 仁愛心이 그 心을 包圍하고 있다. 특히 愛族心이 그 心을 包圍하고 있다. 특히 愛族心이 그 心을 包圍하고 있다.

世上一切은 오직 自己와 自己家族만을 위해서는 命을 바치면 되는데, 세상일에는 조금도 돌보지 않는 이른바 雜草人生이 많아 그 존재가치야 말로 있으나마나 하는 人生이 大部가 自己를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害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런데 石泉族叔은 자기사업(大隆化學工業社) 경영에도 바쁘고 최근에는 오랜持病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安養宗親會會長을 비롯하여 서울 宗親會副會長과 中央宗親會常任副會長 등 前後 10수년 간에 걸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열심히 운영하셨을 뿐더러 實로 宗親事業을 獻身的으로 奉仕해 오신 것을 회상할때 우리宗中을 위해 殺身成仁으로 희생봉사하신 사랑의 실천자로서 가장 보배로운 人物임을 다시한번 追慕해 마지 않습니다.

回顧하면 나는 수년간 石泉族叔과 함께 서울宗親會에서 일할때 그 많은 宗中會議때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 하시어 열심히 일하셨고 더우기 中央宗親會발기할 때 前後 5, 6차례 걸친 발기 및 宗親會의 成立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宗親會를 奉仕해 오신 石泉族叔의 공로를 추앙하여 마지 않습니다.

보람있고 값진 人生을 사시다가 가신 石泉族叔의 冥福을 빕니다.

華燭

● 金一(炳均)代議員의 둘째아우 金炳君은 93년 3월 29日 일요일 12시에 利川邑 은혜예식장에서 정영숙여사의 4녀 남명순양과 百年佳約을 맺었다.

● 金相佑(相哲)理事님의 장남 金東選君이 송준호씨의 차녀 宋永璇양과 93년 4월 3日 오후 1시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宗親 등 정

● 金東學理事의 三女 英珠양이 權在晟氏의 長男 權廣烈君과 安東市에 있는 신라예식장에서 93년 9월 11日 일요일 12시에 華燭을 밝혔습니다.

● 金佑永監事님의 四男 金柄睦君이 강현구씨의 次女 정원양과 93년 4월 17日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청기와예식장 一층홀실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척친지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거주하는 金仁載宗親의 三男 金明鎭君이 안흥련 女史의 四女 강옥현양과 93년 5월 1日 토요일 오후 3시 잠실 향교회관에서 결혼

訃音

● 金東昌幹事님의 八男 金忠煥君이 93년 6월 13日 오후 1시 서울 현대그룹 무궁화홀에서 本會 金鍾植會長님의 主禮로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다 같이 祝賀합니다.

● 石泉 金商俊 常任副會長께서는 지난 3월 27日 오후 4시 30분 안양시 안양3동 762-2 프라자 아파트 206동 209호 自宅에서 別世 하였습니다.



故 金商俊副會長

장일은 3월 29日 이고 장지는 天安市 清堂洞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遺族으로는 夫人 承竹姬女史와 장남 金溢淵을 비롯하여 政淵, 蒼淵과 淑淵, 壽淵 등 三男二女가 있다.

● 金福山顧問夫人 辛酉生 密陽孫氏께서는 1993년 4월 10日 11시 서울 大學病院에서 別世하셨습니다.

葬日은 4월 12日 葬地는 忠南 牙山 郡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 利川宗親會長 金炳潤 本會理事의 母親 金海 金鍾順님께서는 一九九三年 七月八日 1時 89才를 一期로 利川郡 大月面 郡梁一里 自宅에서 善終하셨습니다.

장일은 8월 10日 장지는 九時里 개용대산 九二番地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株式會社 南龍鐵鋼

代表理事 金 東 柱
專務理事 金 東 玉



金東柱社長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13 성원빌딩 702호
전화번호 대표 561-1251~4
293-7091~2
FAX 554-7090 하치장 572-9418

● 襄景公派 尙衣院正公 17代孫
● 中央宗親會 理事

구여물 宗親會 定期總會 열어

93년 5월 30일 11시에 서울 鍾路3가 宗廟에서 順天金氏구여물 宗親會(會長洛蕭)이 定期總會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家族同伴으로 많은 會員이 參席하여 宗親間的 親睦과 和合을 다지며 아울러 夢味間에도 있을수 없는 두고온 故郷山川의 아름다운 追憶을 나누는 情다운 자리가 되었다.

美術大會모물찾기도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美術大會도 열여 優秀作에는 施賞도 하고 寶物찾기도하여 무척 興彩로왔다. 아마도 洛蕭會長님이 前職校長인 관계로 기발한 計劃이었을게다.



本會에서는 炳鑑副會長兼幹事長 이 參席하여 全員들을 激勵하였 다. 구여물 宗親會가 앞으로 더욱 發展하시기를 期待한다.(一無)

金仁培 顧問 本會來訪 要談

在日宗親 金仁培 顧問께서는 지난 5월 6일 本會를 來訪하여 金鍾植 會長님과 本會 運營全般에 걸친 意見を 交換하는 한편 實務陣의 勞苦를 慰勞激勵하였다.



金鍾植 會長과 對談光景(오른쪽이 金仁培 顧問)

이 자리에 同席한 金炳鑑 副會長兼 幹事長의 業務現況을 說明받은 金顧問은 特別히 財政面에 관심을 가지 고 앞으로 任員들의 年會費收納을 철저히 할것과 모든 宗親의 協同하 여 本에 맞는 協贊을 하도록 誘導하 는 들을 當付하는 한편 自身도 宗親會 發展에 微力이나마 一翼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金顧問은 襄景公派 判事公 17代 孫으로 先考 瀾淵公의 二男四女中 長男으로 1923년 慶北 開慶郡 山陽面에서 出生. 幼年 寧越嚴善南 氏와의 사이에 四男을 거느린 多福 한 家庭을 이룩하고 계시며 일찍이 漢日하여 明治大學校 政經學部 政治學科를 卒業하시고 池袋交通株式 會社 代表取締役과 三慶交通株式 會社 代表取締役 東京商銀信用組合理 事 東京韓國人商工會 常任理事 社 團法人東京乘用旅客自動車協會理事 交友旅客自動車協同組合專務理事等 을 歷任하면서 恒常 勤勉하고 禮儀 바름을 기점으로 살아오신 우리 宗 親中에는 보기 드문 大企業家이시

다. 金顧問님은 金一封을 宗親會에 내 놓으시고 圓滑한 業務遂行을 담부 하며 忠實히 歸路에 올랐다.(一無)

忠貞公派宗會 齋室 및 管理人住宅 建立事業벌려

襄景公의 次子인 忠貞公派(承 旨公諱有讓)에서는 92년 1월 10일 모임을 갖고 京畿 驪州郡 加南面 連台里에 계시는 忠貞公 墓下에 管理人住宅으로도 쓰일 齋室을 葺築하기 위하여 建立推 進委員會를 構成하여 회장에 相 舜宗親을 推戴하고 副會長에는 監察公派를 代表한 相佑, 郡守公 派의 明桓, 橫城公派의 東完, 尙 衣院正公派의 性勤宗親과 監事에 俊一, 重吉, 財務에 南浩, 總務에 春熙宗親이 選出되어 工事를 서 두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工程 은 지난 27일에 上樑하고 現在 內部 마무리 工事に 들어갔다. 總工事費 1億원을 目標로 募金 中 相舜會長이 1,000만원 相 佑 300만원 東完 300만원 載俊 100만원 등 都合 4,39 1만원이 募金되었는데 아직도 擔當工事와 道路鋪裝工事等 附帶 工事が 남아 있어 財政面에 蹉跌 을 빚고 있으나 새로 選出된 金 相佑會長님께서 期待하는 바가 크다한다.(一無)

嶺南地域宗親會 宗親會報 第四號發刊

嶺南地域宗親會에서는 「宗親會 報」 創刊號를 90년 5월 20 일에 發刊한 後 제 2호와 제 3 호를 거쳐 93년 5월 2일 제 4호를 發行 配布하였다.

圖書寄贈

天海亭文稿(修正複寫版)一卷 金詰熙

復初堂遺稿一卷 金仁熙

方蘭文稿一卷 金仁熙

慕川文稿一卷 金仁熙

明文新玉篇一卷 金炳鑑

새국어대사전一卷 金炳鑑

人事

金敏淵(理事) 金麟煥(理事·嶺南地域宗親會長) 副會長에 任함

金東柱(서울시) 金相煜(광주시) 理事에 委囑함

金古玉(金台炫)서울시 金東根(서울시) 代議員으로 委囑함 一九九三年 五月 一日字

本報 第六號의 틀린곳을 다 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4쪽 下段 廣告欄의 「李東玉專務理事」를 金東玉專務理事로, 6쪽 上段 始祖史蹟地入口標石 記事中 二段 14行의 「높이 11尺」을 「17尺」으로 바로잡습니다. (編輯室)

本報 紙面 關係로 顯祖 遺詩는 이번 宗報에는 掲載하 지 못합니다. (編輯室)



株式會社 三扶電子

(美國 ® 規格認證工場)

代表理事 金哲永



- 襄景公派 忍百堂公 12代孫
- 中央宗親會 理事
- 서울宗親會 總務理事

本社·工場: 京畿道 富川市 南區 素砂洞 65~23

電話: (032) 346~3564 346~1368 FAX: (032) 346~3564

自宅: 京畿道 高陽市 마두동 783 감촌마을 한신APT 209-203

電話: (0344) 903~1182

양경공 24대손 김 의 식

93의 여름은 인상 깊은 해가 되리라고 본다. 이곳 시조영역에 와서 조상님들의 훌륭한 정신을 잇고 족보의 소중함을 깨달은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 느낌이나 생각이 이곳 전라도 송주군 창촌에 왔지만 이곳에 와서 내가 받은 인상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먼저 교양강좌를 받으러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꿈과, 각자의 생활처지 등을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이 더욱더 깊어진것 같다. 그리고 이곳에서 받은 강좌의 도움은 대단한 것이다. 족보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필요성도 못 느끼던 내가 이곳에 와서 족보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족보를 통해 나의 뿌리인 조상에 대해서 알게되고 그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욱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도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다는데 대해서 새삼스럽게 놀랐다. 그러나 이곳에서 아쉬웠던 것은 관, 혼, 상, 제, 강좌에서 한자가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 힘이 들었다. 그래서 이 강좌의 교육은 실제로 시범을 보이면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의 여름 방학이 조상을 알고 그 고마움을 깨닫게 된데 대해서 이런 강좌를 마련해 주신 중앙중친회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교양 강좌가 계속 되면 하는 바램이다.

양경공 19대손 김 동 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소개하면서 시조가 누구며 누구의 몇대손이며 어느 대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또 내가 너무 집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이런것을 가르쳐 주는곳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대학생 교양 강좌소식을 듣고 꼭 대학에 진학 하여서 자격을 갖추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노력한 결과 다행이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강을 하고 보니 여기 지기 가고 싶은곳이 무척 많았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것이 조금은 힘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때 생각한 뜻이 있었기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일인데 강의 내용이 지면에서만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일을 할때 어느정도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것 보다는 영회형이 말한것처럼 실습을 해보고 또 비디오 상영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생들의 자리가 무척 불편했는데 방식이라도 잡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 와서 두가지를 얻었는데 첫째는 이곳에 와서 나의 뿌리를 찾아 낸것 같아 무척 기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마을외에서 순천 김씨를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알게 되어서 우물안의 개구리 수준을 벗어날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것 같아서 무척 기쁘다. 끝으로 이 교양강좌가 일부 극소수에 한정된것 같은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또 강좌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뿌리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한다.

양경공 19대손 김 동 화

전혀 여름날씨 같지 않은 우중충한 날씨와 함께 기대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수련회는 예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족보를 할아버님들의 정성이 담긴 가르치심으로 이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또한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조상님들의 행보에 대해서 다소나마 알게 된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수확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이 비록 적은 수나마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생각들을 교환하며 사교의 범위를 넓힐수 있었고 또한 전국적으로 한 핏줄을 이어 받은 친구들을 폭 넓게 사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련회 기간내내 번덕스러운 날씨가 심술을 부렸지만 지금은 마치 아무런 사고 없이 4박5일간의 교육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을 축하해 주는 듯이 비구름이 걷히고 오후에는 밝게 빛나는 햇살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박5일간의 이곳 창촌에서의 생활, 덜렁거리지만 명량한 영환이, 약간은 꺼빙해 보이지만 우리들을 잘 이끌어 온 학생회장 그리고 말씀 많던 우리들을 무지럽 보다는 너그러움으로 돌보아 주신 할아버님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뵤든 여러가지 추억들을 남긴 수련회를 마치면서 우리 순천김씨 종친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閉所式(修了證 授與式)



入口 標石 앞에 모여서

金好載教授님이 우리의 宗派系譜등의 說明을 듣고 (受講生이 된 진지한 모습)



양경공 20대손 김 영희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뿌리에 대해 지독한 무지 속에 살아온 나는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려왔던 내 삶에 대해 부끄러움과 미안한 감정을 감출수 없는 4박5일간의 시조제실에서의 여정은 시조의 영당과 묘지에 향을 뜻고 제배를 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느끼는 '이분이 나의 시조이구나!' 라는 탄성속에 밀려오는 벽찬 감동이란 미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느끼는 바가 크다. 둘째날부터 시작된 강의에서 교양강좌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몹시 놀랐다. 시조 평양군에서부터 전서공, 양경공, 절계공, 그 밑으로 수 많은 조상님들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나의 핏줄에 대해 들은 강의에서 머리로 배우기 보다는 차라리 가슴으로 느꼈다고 표현해야 옳을것이다. 교양강좌에 참여하면서 맺은 전국각지에서 모인 종친들과의 인연도 가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석양무렵이면 맑으로, 빗물로 옷을 적시며 뛰던 죽구시합, 저녁을 먹고 나면 펼쳐지던 대담, 그리고 흥겨웠던 놀이들이 우리 종친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더욱 굳어지게 할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순천김씨 양경공 20대손,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언제나 자랑스럽고 자신에 찬 뿌리 깊은 집안의 자손으로 살아갈것이다.



食事は 즐거워

양경공 25대손 김 병 철

나에게 있어서 이곳의 생활은 참으로 유익하고 즐거웠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4박5일 간의 여정을 보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은 나의 뿌리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이었다. 사실 그 전에는 나에게 가장 큰 피해의식이 있었다. 그 피해 의식이란 바로 과연 순천김씨라는 집안은 무엇을 했고 전국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하지만 이번 순천 김씨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여러 종친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업적도 다시 배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순천김씨' 우리 집안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종친들과의 모임을 통해 다른 모임에서는 느낄수 없는 서로서로가 느끼는 화끈하고 끈끈한 정을 느낄수 있었다. 이번 종친회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해 주신 중앙중친회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한다.

여기 온지 3주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4일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오게 됐다. 나름대로 4박5일동안 보람도 느끼고, 배운것도 있고, 사람도 사귀고, 느낀점도 많고 나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시간이 된것 같다. 족보란걸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보고 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뿌리란걸 느낀것 같았다. 예전에는 고작 아버지, 할아버님 합자를 아는게 고작이었는데 여기에서 나의 좁은 생각을 넓히고 조상에 대한 경건함도 갖게 되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두번쯤 더 와서 조금더 배우고 싶고, 주위 친척이나 동생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그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분들과 강의하신 분들,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하고 싶다.

김 승 환

※ 양경공 20대손 김 희 진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곳에 가라고 했을 때 여자가 어차피 시집가면 이 가문과의 인연은 그만인데 굳이 가서 배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있기까지는 내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 곳에 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내용이 너무나 생소한 것들이었고 처음 들은 단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의 진도를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족보 보는 법이나 제례에 관한 것을 배울 때에는 집에서 늘 보던 것이라 재미도 있고 배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친가이고 외가이고 큰 어른들께서 안 계십니다. 친가에 몇분 계시긴 하지만 저희랑 직접적인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와서 있는동안 강의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어른들께서 해 주시는 덕담이나 격언같은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도 좋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우리 일가를 많이 만난것도 좋았고 헤어지기가 조금은 아쉬운 많은 것을 배운 4박5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講 義

양경공 19대손 김 동 영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의 성(順天金氏)에 대해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가끔 명절때 족보책을 생각날때 마다 들춰보면서 내가 순천김씨이고 시조가 누구이구나 하는 정도로 내자신의 조상에 대해 전혀 무관심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기숙집(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므로 기숙을 하고 있음)에서 우연히 성이 順天金氏라는 사람을 만나 우리 순천김씨가 조선시대 오랫동안 수난의 세월을 겪었고 그래서 순천김씨 종친들이 거의 없고 있어도 극히 희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수난을 겪었는지 알수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 순천김씨가 수난의 세월을 겪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조상님들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됐고 그러던 참에 집에 내려오니 아버님께서 여기에 가보라고 권하셔서 좋은 기회인것 같아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때 오기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시조를 모신곳이 너무 쇠소홀에 상당히 실망이 컸다. 이것은 수업을 받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다. 그것은 문종·단종때 충신 충의공 천계김중서 할아버님을 세조가 문종의 뜻을 이어 받아 단종을 지키려는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면서 역적으로 몰아 조선 293년동안 수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조상중에 훌륭한 많은 충신 공신들이 계셨음을 알고나서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과 과연 내가 이분들의 자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졌다. 여기에서 판·혼·상·제등 여러 禮에 대해 배웠지만 배움중에 남는것이 있다면 역시 선조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것 같다. 또한 여기 수련회에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상님들을 욕보이지 않는 훌륭한 후손이 될것을 다짐드리고 싶다. 이런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신 여러 종친님들에 감사 드립니다.

양경공 22대손 김 은 영

처음에 올때는 사실 여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오기 싫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이방에 들어와서 몇시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4박5일동안 난 뭘 알아야 하는가? 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처음 영당에 가서 제배하고 시조 어른의 묘소에 가서 제배를 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핏줄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더해갈수록 저에게는 핏줄의 풀을수 없는 어떤 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아쳐서 생각해 볼때 4박5일동안의 시간은 알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괜히 이런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어느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것은 역행한다는 것보다 저의 집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제가 있기까지의 저의 조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교양강좌는 무척 값진 시간들이었고 한번은 꼭 가봐야 된다. 그리고 4박5일 길면 긴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시간이 나의 일생의 마음가짐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양경공 22대손 김 선 영

양경공 22대손.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이곳에 오기전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죽일원공 15손임을 듣고 그리고 나는 언니와 사촌언니와 함께 이곳에 왔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무슨 김씨나 그리고 무슨 파냐고하면 순천김씨 양경공파라는 것을 이야기해 왔다. 사실 나는 양경공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 교육받은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선 어떤 김씨 어떤파나 묻는다면 자신있게 당당히 말할수 있는 자세를 나는 배웠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수 없듯 나는 뿌리를 찾아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존재여부도 확실하지 않는 일가를 만나러 나는 이곳에 왔다. 많은 사람들과 개성들을 만난것도 정말 좋은 일이었다. 내가 이번에 제일 흥미 를 갖고 그리고 뜻깊게 생각한 일은 족보보는 법을 배운것이다. 역대 조상님들 가문에 훌륭한 조상님들과 그 귀통이에 내 이름도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고 역사와 나와 의 만남이었다. 많은 어른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작은 한가지라도 가르쳐 주시려는 성의와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신것 나는 항상 기억할것 같다. 여러 사회문제로 토론했던 시간 우리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감탄했으며 마치 친 할아버님을 느꼈다. 마지막 제일 생각에 남는것은 식사후에 먹었던 구수한 누룽지였다. 누룽지를 먹기위해 밥도 조금만 먹고 시골냄새 물씬 풍기는 누룽지 한 사발은 한 그릇먹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도시속에 내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마 평생 우리들중에 이번 4박5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경공 19대손 김 기 성

순천김씨 대학생 하게 교양 강좌!!!
문중에서 하는 행사라는 어색하고 생소한 거리감이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여지껏 만나보지 못한 종친을 만난다는 기대감 또한 적지않은 않았다.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교양강좌를 개최하는 가문도 있느냐며 대단한 집안이라고 입을 모아 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가문은 이렇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기도 했다.

요즘은 흔히들 변해버린 세상을 탓하며 잊혀져가는 조상님들의 얼굴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는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그러한 지식이 있어도 너근히 살아가는 오늘의 물질만능의 병폐에서도 작용하는것 같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비롯해 일어나는 정신문화의 퇴보는 무엇인가 중요한것을 잊고 현실에 얽매어 사는 불완전한 발달이 아닌가!

4박5일의 짧은 시간동안 앞선 걱정과는 무관하게 이렇듯 아쉬움으로 남는것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고 종친들과도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라. 여기와 내가 배운것이 있다면 내 혈통과 뿌리의 중요성, 조상님들에 대한 경건함과 나에게서 조금씩 잊혀지는 윤리의식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어른들의 눈에 안 좋게 보이는 행동을 했던것도 같으나 그래도 이렇게 친한 기수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후손의 장래를 걱정하시고 열의로 가르쳐 주신 어른님들에게 감사 의 말을 올리며 좀더 주체적인 사고로 살아가고픈 마음이다.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지만 그렇듯 만나기가 쉬운것 같지 않으니 서운하기도 하다. 이러한 아쉬움이 마음속 바램으로 끝나질 않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양경공 21대손 김 미 정

약간의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시조 할아버지가 계신곳에 왔다. 각 지방에서 모인 순천김씨 대학생들을 보며 순천 김씨도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시조 묘소와 영당을 참배하면서 정말 순천 김씨의 자손임을 깨닫고 풀뿔기를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시조 사색지를 너무 소홀히 한게 아닌가 반성했다.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종친회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했다. 조상님의 행적을 배우면서 자랑스러운 분들의임을 깨닫고 관혼상제의 사례를 배우면서 어려웠지만 미흡하나마 옛 생활과 풍습에 대해서 이해했다. 여러 강의와 특강시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족보보는 법을 배웠던 시간과 김호재 교수님의 특강시간이었다. 어른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 족보를 직접보고 찾아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시조로부터 중대 조상들로 이어지며 현재의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니고 분임토론, 주암림 관광, 비 때문에 강당에서 대신한 좌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박5일을 알차게 만들어 주신데에 많은 사람들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모였을때 서로 서먹했지만 일가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 친숙하게 생활해 나갔다. 길게만 느꼈던 4박5일이 벌써 끝나고 서로 헤어져야 한다니 섭섭하다. 교육이 끝나고 이제 뿌리를 알았다는 것으로 마음이 뿌듯하다. 이제 나는 든든한 뿌리로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조상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함께 했던 대학생 모두가 어른신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을 것이다.



절하는 법도 배우고

제 8 회 수 강 생 의

감 상 문

양경공 22대손 김 효 석

도시에서 자란 저로서는 뿌리없는 나무가 없다라는 대명제를 실감하지 못했으나 며칠 간의 강좌를 통하여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잔가지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섭리-즉 자연의 섭리(이치)-에서 볼 수 있었던 기본적인 명제를 인간에게 代入시키기에는 혈족지식이 부족하였던 저이었는데, 이제야 어느정도 뿌리와 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족보 공부시간에는 물론 족보 보는 방법과 고조부까지의 휘자를 외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0%가 고조부까지의 휘자를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통계에 이것만은 꼭외우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족보에 재미를 나타났을때는 저도 順天金氏문중의 한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으며, 앞으로는 문중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짧은 4박5일동안의 강좌였지만 "뿌리"를 알게 해주신 고마운 가르침의 연속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유사님,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始祖影堂(시조사당) 參拜



始祖墓所 參拜 光景

우리들이 꼭 한번이 거쳐야 할 과정

양경공 20대손 김 진환

우선 이 수련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자신은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공부였습니다. 우리 종친들과의 만남과 생활에서 미래에서의 우리들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강사분들의 강의에서 우리의 옛것과 예절에 대해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족보를 찾는법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수련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것은 수업에 있어서 처음듣고 접하는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실습을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도 그렇지만 보고 외우는 것도 한꺼번에 모든것을 얻어야 하는것이 많아 더욱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교재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것인데도 저희가 잘 몰랐던건 저희들의 지식이 부족한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친회에서 이러한 수련회를 꼭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대학생들이 꼭 한번쯤은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4박5일동안 정말 보람된 생활이었고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 애쓰신 어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도착한 날인 8월 5일은 햇벌이 빨갛게 달구어진 뜨거운 여름 날이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 작년부터 오르다가 사정상 오지 못했던 순천. 나의 시조가 쉬어 계시는 곳에 올헤에서야 오게 되었다. 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집이었지만 여느 재실과 마찬가지로 정갈하고 신비스런 분위기가 느껴졌다. 여기서 보낼 4박5일을 생각하면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첫날을 맞았다. 시조 할아버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주위의 잡초들을 뽑고는 우리는 순천김씨가문의 젊은이들로써 꼭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을 공부하는 강의가 시작되었다. 첫날의 강의는 전서공, 양경공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어렵스럽게 들었던 것을 그때서야 확실히 알수 있었다. 강의후에는 간단한 좌담회를 열어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선 조반을 먹고 족보의 연원에 대한것을 공부했는데, 족보에 대해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내 조상을 알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흥미가 더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젊음을 발산하는 족구시합도 하고 여름의 뜨거움을 오히려 젊음으로 태워버리는 심성함도 보였다. 거기에 더해 밤엔 할아버님들이 마련해주신 여흥하는 시간으로 맛있는 음식과 약간의 음료들로 잊지 못할 밤이 만들어 졌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저물고 다음날은 오전엔 강의를 듣고 서원을 방문하고 주암댐 관광을 하게 되었다. 비가 와서 행동하기는 좀 불편했지만 우산 쓰고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과히 나쁘진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맞벌이와 여성의 참정관계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무척이나 흥미진진하게 요즘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열띤 토론의 장이 벌어졌다. 끝으로 할아버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며 4박5일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맞았다.

! 양경공 22대손 김 주영

저는 집에서 출발하기전 이번 교육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첫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날 밤 저는 약간의 실망과 좀 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천김씨를 한번도 만난적이 없을 정도로 순천김씨가 적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곳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곳의 교육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우리 집안에 대한 공부 또, 같은 많은 종씨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한술밥을 먹으며 생활한다는것. 이 모든것이 우리 순천 김씨가 아니었으면 평생동안 해 보지도 못할 생활을 겪는 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 그리고 나. 지금 우리가 감상문을 쓰면서 모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헤어짐은 싫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만남, 마음속에서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그것은 영원한 만남이 될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육(만남)의 의미를 뒷글에서와 같이 두고 싶습니다. 이만 저의 감상문을 끝내겠습니다.

← 양경공 20대손 김 영호

4박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해준 보람찬 시간이었던것 같다. 조상님, 관혼상제, 예절, 족보 찾는법등 우리가 사회에서는 쉬이 소홀히 할수 있고 약간은 무관심했던 부분들을 보고 배우며 익혔고 이 과정에서 먼저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솔직히 오기전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없는것은 아니었다. 학창생활이 얼마남지 않은 시간속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온 여러가지 학업들을 뒤로 미뤄놓고 오기란 나에게 부담감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종손이기에 또 순천김씨이면서 선현들을 알아야 한다는 인식속에서 당연히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시간 나는 많은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다. 낯설은 부분이 많고 고전이라 때로는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면도 있었으나 할아버님의 재실한 설명, 또 사이사이에 외부 명사들의 초청특강등은 이해를 돕기에 충분했고 4일째 주암댐 관광은 그 동안의 약간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듯 하였다. 누가 나에게 이 모임이 어떠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기억속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중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 양경공 22대손 김 일석

施設改善이 急先務 後代教育에 보람도 느끼고...

中央宗親會 副會長兼幹事長 金炳鎔

八월 四일 햇살이 쨍쨍한 三伏 더위... 아침 일찍이 집을 나와 光州를 거쳐... 재실에 남도한 것이 오후 세시가 지... 나서였다. 재실에는 인적이 도차하... 신 南洲南洲(有)南洲(有)南洲(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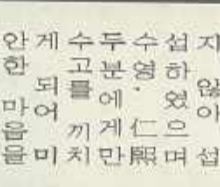
제 八 회 大 學 生 夏 季 教 養 講 座



남연대부는 문바르... 는데는 道가 통하였... 다고 하므로 앞으로... 는 道師로 부르자고... 하며 웃었다.

아무리 살고 뛰어도 예년에 비해 조... 금도 시설이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시조묘역은 擴張 改葬工事로 파헤... 처진채이니 골골이 말이 아니고 구... 식便所도 개선된게 없으니 올해의... 入所式 첫인사도 「克己訓練」으로 알... 달라는 말을 되풀이 할것을 생각... 하니 마음이 씁쓸하다. 묘기장이며

장차 종친회 이끌棟梁으로...



약속한대로... 수영(仁熙)... 俊永(志淵)... 기다렸으나... 俊永(志淵)... 두분은 오시... 지 않았습... 씩하였으므... 두분에게만... 수고를 끼치... 게 되어 미... 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 다.

學生會長을 選出하였는데... 會長 金眞煥, 女學生을 代表... 하는 副會長으로 金주영을... 選出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 강기간동안 강사님들과의 연... 락관계를 원활히 하고 學生... 들을 先導하기로 하였다.



第八回 大學生 夏季 教養講座 修了記念 1993. 8. 9

影幀에 대한 現場講義가 있었다... 이번 參加人員은 受講生이 二十名中... 女學生이 六名으로 여는 때보다도 女... 學生의 參與가 많았고 우리 宗親의... 아님 漢陽趙敏淑(中央宗親會女職... 員)이 合流하여 興色의이었으며 有... 司 世분과 강사님 두분 外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金... 政奎 교수님 金奉斌, 金貴星, 金順洙... 님등 三십名이 나와 盛況을 이루었... 으나 受講生의 다과 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우리의 뿌리와 顯祖의 業績... 을 올바르게 전수함으로써 이들이... 장차 後에 공헌하는 宗親會의 中... 堅人物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사립뿐 아니라 有司님들과 수강생들... 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습에 참여하... 였는데, 자신의 이름자를 족보에서... 발견하고는 신기하고 반가워하는 모... 습을 볼때 이事業의 必要性을 절감... 하였다.

7일 조반전에 講義와 宿所 周... 邊을 清掃하고 朝飯後에 族譜... 의 編纂과 淵源에 對한 강의... 靑田(수영宗親의 雅號) 講義를... 이 수고하는 동안 雨中임에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金宇民 辯護士님을 맞아 特講... 이 한시간여동안 계속되었는데... 화생들이 생활법률 상식에 관... 심을 가졌다.

드디어 끝난인 9일 재실 앞마당에... 자리를 깔고 學生들과 같이 朝飯을... 들며 座談하는 자리에서 感想文을... 써서 받고 講堂에 集合하여 閉所式... 을 열고 受講生 20名에게 修了證... 을 授與함으로써 5일간의 講座를... 모두 마치고 始祖墓所와 影堂을 告... 別參拜한 다음 各自 歸路에 들었다.

6일 일찍시에 기상하여 影堂... (시조 영정)이 모셔진 사당... (주변잡초를 말끔히 뽑고 청소... 한 다음 朝飯후 아홉시에 첫... 講義로 誠甫(仁熙강사의 雅號)... 講師의 始祖와 典書公 襄景公... 의 順으로 略史를 오전 오후에... 걸쳐 마치고 저녁에는 座談에... 들어가 서로의 낮을 의하고 親... 睦을 다졌으며 이 자리에 奉... 斌, 貴星, 宗親이 가져오신... 豆수동으로 분위기를 돋구웠는... 데이 밖에도 順洙(順天宗親會... 長)이 음료수 韓火그릇에서 수... 박 十개와 牛乳 한상자와 생계... 15首등을 보내주시고 光州... 의 金政奎, 金科元, 金相容, 金... 相煜, 宗親께서 金一封을 보... 내 慰勞, 激勵하심으로 講師... 님, 有司님들은 勿論 온 受講... 生들을 감격케 하였다.

오후에는 計劃한대로 受講生 全員을... 引率하여 節齋公이 配享되신 竹林洞... 의 謙川祠를 參拜하고 香料로 金一... 封을 奉모한 후 學生들에게 祭享節... 次와 祠院의 出入法, 位牌에 對한 現... 場講義를 한 다음 住岩館 觀光에... 라 오랜만에 新鮮한 空氣를 마시며... 紀念寫眞도 찍고 茶果會도 열며 四... 일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었다.

9월 17일 정오때쯤 양촌친회 사무실(간지기 부상을 뒀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다. 다음아닌 중앙종친회장님의 자상이요 김승연 고문님의 조모님이신 오명철(吳明哲) 할머니가 오셔서 종친회 임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신다고 해서이다. 할머니는 百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정정하시며 시침과도 크히 정상이시니 천수(天壽)를 받으셨나보다.

계단을 오르실 때는鄭元玉 관직 둘째자부의 부축을 받으셨으나 평지에서는 발걸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사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누은이들이 수고하는구먼"하신다.

분안을 드리고 나서 대

善行宗親

孝、友、節의 표본

金仁 女宗親

金仁女宗親은 양경공의 18代孫인 父親 漢斗公과 母親 江陵崔氏 사이의 三男二女中 長女로 29년



1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화상대리에서 출생하여 43년 10월 15일 海州 吳鳳允과 결혼, 48년 첫 딸을 낳은 후 1950년

한국의 어머니요 順天金閔이 추앙하는 吳明哲 할머니



화 하던중에 「제가 고손자

6·25사변으로 남편이 적군에게 납치되니 본인의 나이 겨우 22歲로 홀몸이 되었는데 50년 7월에 遺腹子로 아들 吳光文을 얻어 남편을 애지중지 돌보는 한편 시부모님을 지성으로 받들고 戰傷軍人인 시동생의 한쪽다리 노릇을 하며 근검절약으로 家計를 지탱하면서 海州吳氏가문의 和睦을 圖謀하고 이웃도 돌보게 되니 大小家는 勿論이고 이웃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수십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끼니때마다 요식을 떠 놓았으며, 자정이면 정한수(靜閑水)를 떠놓고 부군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원한지도 어언 4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시부모님은 정성을 다하여 봉양·간호한 보람도 없이 시부모님은 83세에 시모님은 73세에 세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장한어머니상수상

3남 3녀를 낳겨둔채 세

상을 하되 하니 애절한가운데서도 禮制에 따라 장례를 엄수하고 성묘와 제례를 정성껏 올림으로서 孝友의 道理를 다하였다.

89년 한갑상 어머니에는 앞자리는 비었지만 孝子 光文과 孝婦 安英愛를 비롯하여 孫子 炫錫, 基錫兄弟의 獻壽를 받는 자리에 仁川直轄市長으로부터 일찍이 6·25사변으로 남편을 여의고도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자녀를 훌륭히 키우셨으며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시는 장한어머니라고 칭찬하고 표창장과 상품을 내리니 이는 海州吳氏 門中의 榮光뿐만이 아니라 우리 順天金氏 門中의 크나큰 자랑이 아니리오.

앞으로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一無)

로 금년에 일흔 다섯이 되었는데 마의 주름살이 없으니 「그 많은 주름살을 어찌 다 아노」하시므로 白岩公은 일찍이 日本 明治大學商科를 마치고 한 화그림의 前身인 韓國火柴會長 第4, 7, 8, 9, 10代 國會議員에 被選되고 韓國國民黨總裁로서 第十二代 大統領候補를 하신분이요, 들깨재는 玄岩鍾壽公으로 日本 明治

에서 거들고 그 事業記를 쓰다 보니 故 在民公과 吳 부인이신 吳明哲 할머니의 지극까지의 行蹟을 再 照明하여야겠다고 생각한 참인지라 매우 뜻있는 만남이었다.

海州吳永浩의 딸이므로 二十이 갓 넘은 나이에 明哲 할머니는 翊贊公派의 柯谷公 12代孫인 故 在民公과 결혼함으로써 우리 順天金門의 一員이 되었다.

1896년 丙申生이니 올해로 98세가 되시고 명년이면 白壽上壽를 맞이할 것이다.

이와 같이 高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안 大小事務를 두루 보살피고 계시니 건강과 壽를 하느니 주셨나보다.

子女는 四男一女를 두시니 故 白岩鍾哲總裁가 말하셔서 白岩公은 일찍이 日本 明治大學商科를 마치고 한 화그림의 前身인 韓國火柴會長 第4, 7, 8, 9, 10代 國會議員에 被選되고 韓國國民黨總裁로서 第十二代 大統領候補를 하신분이요, 들깨재는 玄岩鍾壽公으로 日本 明治

서울지역宗親會(會長 金喆熙)는 93년 9월 20일 오후 7시 市內 삼원가든에 모여 宗親會의 활성화 방안과 總會 催日時 및 場所와 運營上의 改善策等을 論議하고 緊急動議로 會則도 改正하기로 決議하였는데 抄案作成은 會長團에 一任하고 다음 臨時總會에 上程通過키로 하였

中央宗親會에서는 炳鎰副會長兼幹事長이 參席하여 執行部를 慰勞激勵하였는데 始終 和氣에 대한 睦을 다졌다

서울 宗親會 理事會 열고 활성화 방안 모색



大學과 延世大學에서 修學 韓火그 創業主로서 그리스 共和 李麗總領事를 歷任하시고 學校法人 北一學院을 創設 理事長으로 育英事業에 貢獻하였으며 金銀銅鐵塔產業勳章 位를 획득하고

社長과 美 유니온후드 社長으로 있 는 鍾煥이 셋째이고 넷째가 虎岩鍾植으로 美합버스大를 거쳐 南加州大學에서 修學 美國名譽哲學博士學位를 취득하고

의 二代에 걸쳐 重任하면서 宗親會 發展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宗中과는 가장 밀접한 인연을 맺고 계시며 고명달인 鍾澈은 梨大를 거쳐 美南加州大學院을 나와 彦陽金永日과 結婚하여 幸福한 家庭을 이루고 있으니 子女福 역시 하늘이 내리신 天福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간추려 보면 吳氏 할머니는 우리 金門에 오셔서 낳아서 기르신子女가 國會議員이 두사람이고 대통령 후보를 뒀으며 재벌의 총수도 길러 내심으로서 안으로는 國家經濟를 떠맡고 밖으로는 國威를 宣揚하게 하고 또한 門中도 빛내도록 하였으니 위대하고 장한 어머니시며 門中의 추앙의 대상이시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시내 中國正統料理店인 天安門에서 오찬을 대접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종친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든것을 시자부터 끝까지 화목으로 맺고 풀라」는 말씀을 되풀이 하셨다. (一無)

祖上을 섬기는 崇高한 마음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家口當 1부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炳鎔

發行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1(태평빌딩)
電話: 02-718-0529

題字
無影金仁厚
<中央宗親會 理事>

第四期 定期總會 金鍾植 회장 인사

화창한 날씨에 우리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第四期定期總會를 맞이하여 人事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祖上님과 血族의 關心이 없으면 宗族의 소중함을 알 수가 없고 宗族觀念이 없으면 民族의 소중함을 認識할 수 없으며 民族意識이 稀薄하고서 아예 自身의 祖國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城으로 一新될 날을 期待하면서 金昇淵고문의 祖上을 받드는 큰 뜻에 고마움을 표하는 同時에 우리 中央宗親會나 여러 宗親들께서도 墓域에 대한 考證과 規模를 調査하여 알려주는 등의 應分의 協助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萬事에는 功과이 있게 마련인지 이러한 좋은일이 있는 反面에 슬픈일도 생겨 가슴아픈 마음 금할바 없습니다.

다음아닌 金商俊 常任副會長님이 지난 3월 27일 세상을 떠났으므로 遺家族는 勿論이거나 우리 宗親會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本會 創立을 前後하여 기뻐하신 熱意와 創立後 四年間의 業績은 이 자리에서 이따 列擧할수 없을 만큼 많으시고 또한 앞으로도 할일이 많으신데도 天命을 거역하지 못함이라 70을 못넘기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니 哀惜한 마음 그지없으며 다만 冥福을 빌뿐입니다.

우리는 이 時點에서 마음을 다듬어 내가 宗親에게서 무엇을 바라기에 앞서 무엇으로 奉仕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姿勢를 더한 忠 敦 團 結함으로서 宗族의 힘을 再充實하는 契機를 삼으시 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家庭에 萬福이 늘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人事에가름합니다.



다라서 祖上을 위한 事業이나 祭祀를 받드는 뜻은 祖上에 대한 感謝와 敬慕敎誨를 도모하므로써 大局的이로써 民族의 和合과 團結力으로 昇華되어 國家의 運命과 民族의 安寧에도 貢獻하게 될것입니다.

여러분이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求心點인 始祖墓所가 너무나 험소하고 초라하여 恒常 송구함을 禁할길 없던 次에 多幸이도 金昇淵顧問이 저지않은 淨財를 들여 墓所를 擴張 改葬하는 工事が 이미 進行中에 있고 墓域全體를 始祖墓域답게 淨化한다 하니 多幸한 일이며 머지않아 三韓甲族의 始祖域으로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第四期定期總會 4월 25일 11시에 市內 鍾路區長橋洞 한화그림 本社社屋인 玄岩빌딩 28층 大會議室에서 開催하였다.

이날 定期總會는 會則 제 12 조 2항에 의하여 召集되었는데 代議員等 參席人員이 128명이고 應召者로 參席한 宗親이 約 300명으로 總 160餘명이 參席한 가운데 金東基理事님의 司會로 開會하였다. 會順에 따라 國民禮禮가 있는다음 金鍾植會長은 人事말에서 金商俊 常任副會長님의 갑작스런 別世를 哀悼하며 故人의 冥福을 祈願하자는 제의가

도록 現在 作業中에 있으니 本會 中央宗親會에서도 別途 豫算은 세우지 않았으나 應分의 協助은 하여야 하겠다고 하자 全員拍手로 이를 全幅歡迎했다. 善行者 表彰에 있어 불구의 母親을 극진히 간병하고 昏定屢



과 現在 始祖史蹟 守護管理委員會 地守護管理委員會 長 및 本會 顧問等 歷任하시면서 宗親會 發展에 寄與하신 功勞로 金鍾植宗親님과 故金商俊 常任副會長님의 中央宗親會 創立以來 本會發展에 기여하신 功勞를 높 이 찬양하고 두분에게 功勞牌

를 들었으며 本會副會長 이신 金祐熙(서울宗親會 會長) 金載俊(舊구여울宗親會 會長)과 金振聲(宗睦會 會長)等 세분에게 感謝牌을 들여 고마움의 뜻을 표하였다. 第四期中의

이와 參席人員 全員이 起立하여 默念을 올린다음 昨年末부터 始作한 始祖墓所 擴張改葬 草事業에 對하여 金昇淵 本會 顧問이 巨금을 들여 墓所를 王陵에 버금가는 웅장하고도 장엄하며 始祖의 墓所답게 꾸미

常任副會長의 補選은 會長에게 委任하여 追後 會長團會議에서 選出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 는 方式으로 할것을 決議하고 任期가 滿了 監事세분(金佑承 金圭南 金贊洙)도 全員留任하 는데 全員이 贊成 同意했다. 討議에 들어갈무렵 時間이 너무나 흘러서 지루하니 場所를 옮겨 1시간(은혜나무집)으로 자리를 옮겨 푸짐한 소고기로된 불고기를 들며 情談을 나누며 親睦 을 다진다. 午後 늦게야 散會하였다.

第四期 定期總會 盛況

次期豫算案 通過 孝行賞도 授與

省과 出告必面을 게을리 하지 않은 故 仁敦公의 장남인 扶餘에 居住하는 金興南宗親內外를 孝行者로 選定하고 이날 孝行 賞牌의 賞品을 수여하였다. 이밖에도 甲子譜 編纂委員會長 業務報告에 이어 金炳鎔 幹事長으로 하여금 第四期 決算報告의 油印物을 逐條說明케 하고 金贊洙 監事의 監查報告가 있는다음 이를 인준 통과하였다.

第五期 歲入 歲出 豫算案 審議는 미리 준비한 油印物을 나누어